

제주방언의 보전 정책 동향과 방향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1. 제주방언의 보전 정책 논의

1) 제주방언의 사회적 조명 시기

제주방언의 ¹⁾ 우수성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국어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그동안 방언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영어공용어 논의가 진행되자 한국의 정체성 문제가 부각되었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방언의 가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외국어 상용 지역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제주방언이 보존 대상으로 급부상하였다.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영어공용어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되면서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언어에서 찾으려고 했으며, 제주방언 보존 방안이 거론되었다.

한국어에는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듯이 제주방언에는 제주 사람들의 정신(삶의 역사)이 배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언어는 의사소통수단이며, 정보전달의 기능이 있고, 공기와 같아서 귀중하지만 그 가치를 망각해서 홀대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언어 보전 주체는 해당 언어 사용자인데,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공공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어 정책에 지역어 정책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어 정책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지역어를 보존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지역어 사용자들의 의무이긴 하지만 정부도 지역어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한국어의 해외 전파를 위해 한국문화원과 한국어학당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지역어 정책으로는 자료구축 사업을 하는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어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언어의 소멸 요인과 소멸 언어들이 부각되면서 한국어와 지역어의 보존 방안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제주방언은 한국어의 원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위상에 비해 사용자의 감소로 절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은 2010년 12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제주어 소멸위기설’이다. 언어는 특정 지역에 맞게 진화해 온

¹⁾ 제주지역에서는 제춧말, 제주방언, 제주지역어, 제주어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책적인 용어로는 ‘제주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민족은 별개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족과 언어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국명·민족명+어’라고 할 때는 주로 국가나 민족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어가 있고, 각 지방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 언어인 지역 방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부르는 명칭은 대개 ‘지역명+방언’으로 쓰인다(서울방언, 경기도방언, 충청도방언, 경상도방언 등).

제주사회에서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대상으로 ‘제주어’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제주방언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편이다. 그러나 언어명은 문법체계 등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현재는 ‘제주방언, 제춧말’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제주방언’을 사용하고자 하며, 다만 기관이나 연구명에 ‘제주어’가 쓰일 경우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제시하였다.

문화적 경험의 결합체이므로 한 언어가 소멸된다면 그 언어의 낱말과 문법에 내포된 지식도 소멸되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를 잃게 되면 정체성을 상실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제주방언의 소멸은 제주와 제주인의 정체성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며, 제주방언 사용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제주방언을 사용하지 않아도 생존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제주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제주방언의 보전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소멸위기 분류 이후 제주방언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행되고 있다.

2) 제주방언의 이해에 필요한 요소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우선이다. 그런데 제주방언 화자들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상호교류를 위하여 제주방언을 반드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국어(표준어)가 있고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전파되는 등 제주방언을 대체하는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제주방언을 모르더라도 학교생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다. 말하자면 제주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절박성이 없는 언어 환경이므로 제주방언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적·정책적으로 표준어 사용을 권장해 왔으며, 지역은 지역대로 자신들의 지역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삼아왔다. 그동안 국어정책은 다양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어의 가치를 등외시한 표준어 정착에 집중한 결과 제주방언을 비롯한 지역어의 가치와 위상이 약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제주방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방언이 국어(표준어)에 비해서 특이하고 독특하다고 해서 별개의 언어가 아니고, 국어와 다른 언어도 아니며, 그 범주를 벗어날 수도 없다. 즉 제주방언은 국어의 하위 언어이며 문법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다만 제주방언에는 중세국어의 일부 남아 있어서 국어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2. 제주방언의 보전 정책 동향

제주방언은 제주 10 대 문화상징으로 선정(2008 년)될 정도로 제주 사람들의 혼이 담겨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제주도’ 하면 풍광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자연유산은 유형문화재여서 가시적인 화폐 가치가 드러나지만 제주방언은 무형문화재이므로 드러내놓고 그 존재를 알리고, 사용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적 지원, 제주방언 말하기 대회와 언론을 활용한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행정적 지원

유네스코 소멸위기 진단 이전(2010 년 12 월 기준)에 행해진 정책을 보면 2007 년 9 월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0 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탐라문화제 기간)을 ‘제주어 주간’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5년 단위로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유네스코 소멸위기 진단 이후(2011 년 1 월 이후)에 행해진 정책을 보면 2011 년 4 월에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기관을 설치(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 제주방언 말하기대회

제주방언이 축제의 대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말하기대회’이다.

‘탐라문화제’²⁾ 기간에 ‘제주어 주간’이 포함되면서 제주방언 관련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교원총연합회(2003), 국어문화원(2008), 사)제주어보전회(2008) 등에서는 매년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제주방언 말하기대회는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별 특별 운영프로그램으로 진행하거나, 마을별, 단체별 주최로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 제주방언 보전 실태(지역언론 중심)

적어도 2006 년 이후 2014 년 현재까지 제주방언 사용 환경을 확대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제주지역 언론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 KBS, 제주 MBC, KCTV, 제주 CBS 방송국

3. 제주방언의 보전 정책 방향

1) 제주방언 표기안 마련

제주방언은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 왔거나 써 오던 말인데 표준어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사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제주방언의 부흥을 위해 입말은 물론 글말(문자)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올바른 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제주방언 사용자들은 제주방언으로 쓰기보다는 말할 기회가 많았다고 보며, 제주방언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목적에 적용하기 위하여 철자 표기에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1950 년대부터 제주 설화를 채록하고 구술 상태로 표기를 시도했으며, 1980 년대로 오면 채록과 정리자에 따라 제주방언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방언 표기법’ 제정 요구가 있었다. 특히 1990 년대 이후 구술자료의 채록□정리가 보편화되면서 제주방언 표기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주방언의 전승과 교육에 필요한 표기 지침을 만들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 년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하였으며, 2014 년 12 월 『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발간 예정이다.

2) 제주방언 보전 관련 인프라 구축

제주방언이 유네스코(UNESCO)에서 2010 년 12 월 ‘소멸위기의 언어’(4 단계)로 분류된 이후 제주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1 년 이후 제주사회에서는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방언 보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설립된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주어 보전 및 관리 방안과 관련된 연구와 활용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제주어

²⁾ 탐라문화제 전신은 ‘한라문화제’이며, 1992 년에 ‘제주사투리말하기대회’(→제주말 말하기 대회→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사투리연극제’(대본을 제주방언으로 고치기)를 주관하고 있으며, 제주방언의 활용과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표기법 제정, 제주어 기초어휘 선정, 제주어 대중 교재 발간' 등 제주방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주어말하기 대회' 등 제주방언의 상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제주방언 관련 기사, 캠페인, 퀴즈' 등을 통해 제주방언 사용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제주방언을 활용하여 창작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방언 활성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가 일정 부분 구축되어 있으나, 제주방언의 사용 범위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하여 좀더 조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세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구세대가 제주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일명 '제주방언보급자리'를 만들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제주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를 위해 제주방언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영구적인 보전을 위해 문자기록화 사업을 병행한다.

대중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이 있다. 영화나 드라마 작가들이 제주방언으로 작품을 쓰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둔다. 최근에 '뚜럼브라더스, 사우스카니발'과 같은 대중음악인이나 영화 <지슬> 감독은 제주방언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제주 사람이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제주도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므로, 제주방언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자나 방송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

3) 법적·제도적 지원 활용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역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우선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고(2007. 09. 27. 제 280 호), 이에 따라 '제주어 보존 계획 수립, 제주어 실태조사, 제주어보존육성위원회 운영, 제주어 보급과 교육' 등을 실천한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어발전 기본계획」은 현재 2차 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이 조례의 특징으로는 '제주어 주간'을 지정함으로써 매년 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탐라문화제 기간) 제주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 하에 제주방언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지금과 같이 '제주어 주간' 지정은 좋은 제도이나 탐라문화제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행사 참가자들만 아는 정도이다. 앞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제주방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어 주간'을 별도로 정하고, 그에 걸맞은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제주방언을 재료로 하여 '디자인 공모, 전시, 글짓기, 말하기, 공연' 등 다양한 예술행위를 유도할 수도 있다.

4) 제주방언 능력평가 시험제도 도입

여기에는 한국어 검정시험제도나 자격증 제도를 참고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제주방언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광업 관련 종사자, 방과후 교육 담당자, 문화예술교육강사, 방송인(아나운서 등), 교사 등 제주방언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실제로 제주방언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5) 제주방언 등 제주문화에 대한 자존감 부여

(1) 제주방언 보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표준어라는 대체 언어가 있어서 제주방언 사용 기회가 줄어들고, 제주방언을 사용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준어에 밀리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제주방언을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게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의 모든 것에 대한 존중감을 부여하고 이를 표현하는 제주방언이 귀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식하게 한다.

(3) 제주방언 사용에 대한 의지를 확산시킨다.

젊은 세대들이 제주방언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전승 의무가 없어지는 실정이므로 가정과 사회에서 가능하면 제주방언 사용 기회를 확대한다.

제주방언 사용자들이 담화공동체의 제 1 요소로 제주방언을 인지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제주방언을 사용하고 보존의 주체가 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4) 제주방언에 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주방언 사용자 감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일차적인 것은 모어의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고, 사용할 의무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공용어인 표준어(국어)가 있어서 이미 지배언어로 정착되었으므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제주방언을 사용하고, 이를 살리려는 강제적인 언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제주방언 사용자 수의 감소에 따라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제주방언 사용을 권장하고 제주도의 공식 언어로 예우하고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문헌

문순덕(2013), “제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방법”, 『제주특별자치도』 117.

문순덕(2014), “한국어의 세계화 정책이 제주말 진흥 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주발전포럼』 49 호, 2014 년 봄호, 제주발전연구원.

국립국어원 사이트(www.korean.go.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이트(www.unesco.or.kr)